

##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박지윤 정영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아동들이 보이는 거절반응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거절상황을 구성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결과, 우리 아동들은 미국 아동용 거절민감성 측정에 사용된 12가지 거절상황에서 대부분 거절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 아동들이 거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절상황이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 아동들이 거절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친구소외 관련 스트레스 상황과 교사관련 스트레스 상황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토론한 결과, 우리 아동이 거부되거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상황 13가지를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284명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기존의 미국 척도에서 사용된 거절상황 12가지와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거절상황 13가지를 합하여 총 25가지 잠재적 거절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의 응답자들의 거절예상 정도와 거절관련 정서로서 거절예기불안과 거절예기분노를 측정하여 교사관련 거절상황 4개와 또래관련 거절상황 8개로 구성된 12가지 거절상황을 선정하였다. 12가지 거절상황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설명 변량이 비슷한 두 개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가지 거절상황을 토대로 향후 거절반응의 개인차 연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어: 거절상황, 거절예기불안, 거절예기분노

타인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수용되고자하는 욕구는 인간의 주요 동기중의 하나이다(Baumeister & Leary, 1995; McClelland, 1987; Rogers, 1959). 그런데 거절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다. Downey와 Feldman(Downey & Feldman,

1996; Feldman & Downey, 1994)은 사람들이 거절당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보이는 반응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거절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라는 인지-정서적 처리 경향성을 제안하였다. Downey와 Feldman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 거절당

---

\* 교신저자: 정영숙, E-mail: yschong@pusan.ac.kr

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예기불안을 느끼고, 쉽게 거절당했다고 지각하고, 거절되었을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로 정의하였다(Downey & Feldman, 1996; Downey, Khouri, & Feldman, 1997; Feldman & Downey, 1994).

거절민감성이 거절상황에서 보이는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변인이 되는 것은 이것이 인지, 정서, 행동적 연계를 갖기 때문이다(Mischel, Cantor, Feldman, 1996; Shoda & Mischel, 1998). 인지-정서 성격체계 이론에 따르면, 거절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 신호 또는 거절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나치게 편향된 부호화와 신념은 거절에 민감한 개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강렬한 정서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Mischel, 1999). 거절민감성이 높은 개인들이 보이는 편향된 사고와 자동적이고 강렬한 정서 상태는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획적인 활동과 숙고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민감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거절의 의미를 떠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행동을 선택하기 어렵고, 그 결과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각 상황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래, 부모, 연인으로부터 거절이 일어날 수 있는 가상적 상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Downey와 Feldman은 불안/염려 차원과 수용/거절 예상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Downey와 Feldman은 거절민감성을 삶에서 중요한 타인에 의해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면

서 예기불안을 경험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는 (Downey & Feldman, 1996, p. 1329) 거절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개발하였다.

성인용 거절민감성 척도에는 또래, 부모, 연인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는 18가지 대인관계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거절민감성 척도를 사용한 일련의 연구들은 거절민감성 개념이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 거절민감성 척도 상에서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민감성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다른 사람(낮선 사람 또는 연인)의 모호한 행동을 자신을 거절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며(Downey & Feldman, 1996), 연인에 의해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거절민감성이 높은 남자들은 거절민감성이 낮은 남자들에 비해 상대방에 대해 질투하거나 통제하려는 행동이나(Downey & Feldman, 1996), 폭력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Downey, Feldman, & Ayduk, 2000). 거절민감성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거절민감성이 높은 여성들은 연인에 의해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며(Downey & Feldman, 1996),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yduk, Downey, & Kim, 2001).

거절민감성 척도를 사용한 성인 연구들에서 거절민감성 개념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제시됨에 따라(Downey & Feldman, 1996), Downey, Lebolt, Rincon, 및 Freitas(1998)는 아동들의 또래와 교사에 대한 거절민감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는 또래와 교사에 대한 아동들의 거절 예상과 더불어 거절에 대한 예기불안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성인용 거절민감성 척도와 동

일하다. 그러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는 성인용 거절민감성 척도(RSQ)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아동용 척도는 가상적 거절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기정서로 불안이외에 분노가 추가되었다. 이는 빈민가의 공립초등학교 5, 6, 7학년들에게 또래나 교사로부터 의도가 모호한 거절을 당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였을 때, 아동들이 불안뿐만 아니라 분노 반응을 보고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다(Downey et al., 1998). 분노 반응은 자신을 거절한 상대방에 대해 화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생각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계획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용 척도에서는 거절당한 후의 심리적 반응이 추가되었다. 성인용 거절민감성 척도에서는 삶에서 중요한 타인에 의해 거절될 것을 예상하면서 예기불안을 경험하는 경향성이 거절민감성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이었다(Downey & Feldman, 1996). 그러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에는 예상되는 거절의 정도, 거절을 예상하면서 겪는 정서(불안 또는 분노)뿐만 아니라 거절을 당한 이후의 심리적 반응(거절당했다고 지각되거나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끼는 정도, 거절당했을 때의 과도한 분노 또는 희생자적인 반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즉, Downey 등은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거절을 예상하면서 예기불안 또는 예기분노를 경험하고, 의도가 모호한 거절을 경험한 후 거절당했다고 느끼거나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끼며, 거절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그 정의를 확장하였다(Downey et al., 1998 p. 1076).

아동들의 거절민감성을 대표하는 단일한 점수

계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여 일부 요소<sup>1)</sup>(거절불안 민감성, 거절분노 민감성, 거절 후 분노 반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부적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owney et al., 1998). Downey 등(1998)의 연구에서, 함께 실험에 참가하지는 자신의 요청을 친구가 거절하였다고 전해 들었을 때, 거절분노 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거절분노 민감성이 낮은 아동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wney et al., 1998, 연구2).

또한 거절민감성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 6학년, 7학년 때 거절분노 민감성 또는 거절 후 분노 반응이 높은 아동들은 1년 후의 자기보고에서 공격 행동, 반사회 행동, 그리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피해 입는 것 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평가에서도, 거절 예기분노 또는 분노 반응이 높은 아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래에게 보다 공격적이고, 학교에서 잘 지내지 못하며, 우연한 사고 또는 교사의 지적 같은 부정적인 사건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절 분노 민감성 또는 거절 후 분노 반응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 또는 성인과의 갈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정학처분을 받는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owney et al., 1998, 연구3).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거절민감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었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소녀들일수록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보일까봐, 그리고 그들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다. 또한 거절민감성이 높은 소녀들은 그들의 남자

1) Downey 등(1998)의 연구에서 거절불안 민감성은 거절예상 점수와 거절 예기불안 점수를 곱한 값이며, 거절분노 민감성은 거절 예상 점수와 거절 예기분노 점수를 곱한 값임.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조차 하겠다고 보고 함으로써, 남자 친구와의 관계 지속을 위해 반사회적 행동 또는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Purdie & Downey, 2000).

거절민감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드문 편이다. 대학생과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거절민감성과 애착 유형을 연결시키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거절민감성과 애착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 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은 안정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거절민감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복동, 2000). 아동의 경우에도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거절민감성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위의 연구들은 거절민감성에 관한 초창기 연구로 의의를 갖지만, 거절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성인용 거절민감성 질문지(RSQ)와 아동용 거절민감성 질문지(CRSQ)를 번안하여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거절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적 조건형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서는 어려서부터 해당 문화의 사회문화적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Averill, 1985; Kitayama & Markus, 1994; Levy, 1984; Russell, 1991; Shweder, 1993). 집단주의 문화유형에 속한 사람들과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타인중심적 정서(예: 공감, 대인간 조화감, 수치심)와 개인중심적 정서(예: 분노, 좌절, 자부심)간의 차이는 문화유형에 따라 정서체현과 표현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Frijda & Mesquita, 1994; Matsumoto, Kudoh,

Scherer, & Wallbott, 1988; Triandis, 1994).

또한 정서의 인지이론에 따르면(Lazarus, 1991; Lazarus & Lazarus, 1994), 정서는 개인이 접한 현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평가 차원에는 보편적인 것과(예: 상황의 신기함과 즐거움) 문화특수적인 것이(예: 책임, 통제 및 자기관) 있다(Ellsworth, 1994). 그러나 무엇이 신기하고 즐거운 자극인가는 문화적이고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상황을 거절상황으로 인식하는지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한 서구에서는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절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또한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또는 거절당한 이후에 개인이 느끼는 감정 역시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적 감정의 적극적인 표현이 용인되고 권장되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화를 낼 수 있다. 반면, 타인과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분노 같은 부적 정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제하고 부적 정서의 수용을 통한 자기 개선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쓸데없는 부탁을 했다고 자신을 탓할 수도 있다.

집단주의 문화 또는 개인주의 문화처럼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체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강도 및 그 표현과 조절의 양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들을 고려해볼 때(조궁호, 1997; Frijda & Mesquita, 1994; Matsumoto et al., 1988; Triandis, 1994), 대표적인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란 우리나라 아동들이 거절당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절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강도는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한 서구 문화권의 아동들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성장하는 우리 아동들의 거절반응의 차이를 개인주의 문화권의 아동

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척도에서 사용된 거절상황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아동들의 거절반응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위한 첫 단계로 우리 아동들의 거절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절상황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아동들이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기존의 미국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에서 사용된 거절 상황이 우리 아동들도 거절을 예상하는 상황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만약 기존의 거절상황에서 우리 아동들이 거절을 예상하는 비율이 아주 낮거나 그런 상황에서 거절에 대한 불안이나 분노가 적다면 그런 상황은 우리 아동들에게 거절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거절상황 중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작업은 우리 아동이 거절을 예상하면서 거절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적절한 상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비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아동들에게 적절한 거절상황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 예비조사 1-1

### 방 법

### 조사 대상자

울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37명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였다.

### 조사 도구

예비조사에서는 기존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를 이경숙 등(2000)이 번안한 것을 토대로, 여기에 다 세 가지 상황을 추가하여 아동들이 거절당할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총 15가지 상황을 구성하고 각 상황에서의 아동들의 거절 예상 정도와 경험하는 정서, 생각, 행동 반응을 조사하였다.

예비조사 1에서 사용된 15가지 상황은 기존의 아동용 거절민감성척도에 제시되어 있는 12가지 상황(또래관련 여섯 상황<sup>2)</sup>, 교사관련 여섯 상황<sup>3)</sup>)과 우리 아동들에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세 가지 상황(또래관련 한 상황<sup>4)</sup>, 교사관련 두 상황<sup>5)</sup>)을 추가하여 15가지 상황을 선정하였다. 기존 척도 이외에 추가된 3가지 상황은 5학년 아동 몇몇을 대상으로 자주 접하는 거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여 얻어진 응답을 근거로 발달심리학을 전공하는 세 사람이 논의하여 선정하였다. ‘생일초대 요청’

2) 또래관련 6가지 상황: 돈빌리기, 흉보기, 친구와의 싸움, 새친구 사귀기, 물건줍기, 조차기

3) 교사관련 6가지 상황: 고자질, 학생선발, 수학시험 돕기, 싫어하는 아이, 비디오테이프 빌리기, 교실꾸미기(기존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에서는 학급 파티와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는 교실 꾸미기가 더 친근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변경하였음)

4) 생일초대요청

5) 수업중의 배아픔, 퀴즈맞추기

상황은 같은 반 아이의 생일에 친구만 초대받고 자기는 초대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도 초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지 아닐지에 대해 예상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친구의 생일에 초대받는 것은 우리 아동에게는 자주 접하는 상황이면서도 쉽게 거절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되었기에 가능한 거절상황으로 선정되었다. 교사관련 상황인 '수업중의 배아픔' 상황은 아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배가 아플 경우에 선생님이 도와줄 것인지 아닌지를 예상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퀴즈 맞추기' 상황은 학급에서 선생님이 퀴즈를 맞히는 사람에게 게임 CD를 선물로 주는 경우 자신이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자신을 지목할 것인지 아닌지를 예상하는 상황이었다.

아동들에게 15가지 상황을 각각 제시하고, 거절 예상 정도를 질문한 후(예를 들어, 그 친구가 너를 생일에 초대할까요?), 그 정도를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거절예상 척도에서 1점에서 3점은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예상하지 않는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거절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4점에서 6점은 거절을 예상하는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아동의 거절예상 정도 판단이 끝나면, 이어 거절당한다는 예상을 할 때 아동이 어떤 기분이 들지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예를 들어, 친구가 너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거절이 일어났을 때 느끼는 정서 반응을 묻는 것은 거절반응의 개인차를 구성하는 주요 속성이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거절되었을 때 과도한 정서반응(예; 분노)을 보이는 것이므로(Downey & Feldman, 1996; Downey, et al., 1997; Feldman & Downey, 1994), 거절상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절예상 정도 이외에 거절과 관련된 정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 절차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의 수업 시간을 두 시간에 받아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아동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각과 기분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라는 설명을 들은 후, 약 80분 동안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5학년 학생들은 먼저 40분 동안 설문지에 응답하고, 10분 동안 휴식한 후, 다시 40분 동안 응답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를 회수한 후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나 실생활과 잘 맞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 아동들과 추가적인 대화를 하였다.

## 결과

Downey 등(1998)이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를 개발할 때 선정된 거절 상황들은 아동들이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아니면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에서 아동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들이었다(Downey et al., 1998). 그런데 37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우리 아동들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이 많았다.<sup>6)</sup> 37명의 아동의 응답에서 거절예상율이 10%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선생님에게

6) 15가지 상황에서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한 정도(백분율): 돈빌리기(24%), 홍보기(29%), 고자질(37%), 친구와의 싸움(32%), 학생선발(51%), 새친구사귀기(19%), 교실꾸미기(37%), 물건줍기(40%), 비디오테이프빌리기(8%), 조짜기(27%), 수학시험듣기(16%), 싫어하는 아이(18%), 수업중의 배아픔(21%), 생일초대요청(16%), 퀴즈맞추기(8%)

비디오테이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상황(비디오 테이프 빌리기)과 퀴즈 정답을 말하려고 손을 들고 있는 상황(퀴즈 맞추기)이 나타났다. 그리고 20% 미만으로 거절을 예상하는 상황으로는 ‘새친구 사귀기’, ‘수학시험 돕기’, ‘생일초대 요청’ 상황이 있었다. 응답자의 30% 이상이 거절을 예상하는 상황은 네 상황이었다. 친구와 다툰 후 다시 말을 걸고 싶을 때 친구가 이야기하고 싶어 할지 묻는 ‘친구와의 싸움’ 상황, 교실꾸미기를 도와주려고 손을 들고 선생님이 뽑아주기를 기다리는 ‘교실꾸미기’ 상황, 다른 아이를 괴롭힌 적이 없다는 자신의 말을 선생님이 믿어줄지 고민하는 ‘고자질’ 상황, 및 물건을 바닥에 쏟은 것을 같은 반 아이들이 보고 도와주길 기다리는 ‘물건줍기’ 상황이 아동이 비교적 거절을 많이 예상하는 상황이었다.

설문지 조사를 끝낸 후 사후면접에서 아동들은 교사에게 부탁하거나 교사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은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함으로써 아동들이 그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가지 상황에서 거절과 관련된 예기정서에 대한 아동들의 자유반응을 분석한 결과, 거절당하기 전에 아동이 예견하는 주된 정서반응으로 분노반응(화난다, 짜증난다, 배신감느낀다 등), 불안반응(걱정된다, 초조하다 등), 낙담반응(우울하다, 슬프다, 섭섭하다 등), 그리고 중성적 반응(그저 그렇다)들이 나타났다.

비록 37명의 아동들의 자료이긴 하지만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에 사용된 대부분의 거절 상황들에서 우리 아동들은 거절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예비조사 1-2

예비조사 1-2에서는 아동들과의 소집단 토론을 통해 우리 아동들이 거절을 경험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방법

### 조사대상자

울산시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교 5학년 36명(남: 19명, 여: 1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아동들은 6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중 개인적 사유로 면접을 중단한 두 학생을 제외하고 34명의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 절차

거절민감성을 측정하는 거절상황을 선정하기 위해 Downey 등(1998)은 아동들을 6-12명씩의 집단을 구성하여,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호작용들에 대한 주제로 개방형 면접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따라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6명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아동들에게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거절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소 구조화된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거절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되는 주제를 연구자가 제시하고, 이에 관해 아동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에게 제시된 주제는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민하영, 유안진, 1998)에서 친구-소외 관련 스트

레스상황<sup>7)</sup>과 교사관련 스트레스 상황<sup>8)</sup>을 제시하였다.

거절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탐색하기 위해,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10가지 상황을(예를 들어,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친구가 있는 상황) 제시한 후, 어떤 경우에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였는지 아동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하였다.

## 결 과

### 친구-소외 관련 스트레스 주제와 관련하여 아동들이 보고한 구체적 거절상황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분류한 일곱 가지 친구-소외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들이 구체적으로 보고한 반응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급할 때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는 친구가 적다고 느끼는 구체적 상황으로 아동들은 ‘준비물 또는 학용품과 관련된 물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모르거나 이해 안 되는 문제에 대해 잘 가르쳐주는 친구가 적다라고 느끼는 구체적 상황으로는 ‘교과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과 ‘비밀 이야기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 등,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나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는

상황’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좋아하는 친구가 없거나 적다고 느끼거나, 친구 사이에 인기가 없다고 느끼는 상황, 또는 친구들과 다투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평소 친한 친구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친구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는 상황은 그 내용이 중복적으로 보고되었다. 관련된 구체적 상황으로 아동들은 ‘약속을 위반하거나 배신한 상황’(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했다가 취소하고 다른 친구랑 놀 때, 친구가 나를 두고 먼저 가버릴 때 등), ‘자신을 무시하거나 왕따 시키는 상황’(예를 들어, 말을 걸어도 무시할 때, 말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 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 상황’(예를 들어, 싸울 때 도와주지 않을 때, 누가 괴롭힐 때 도와주지 않을 때, 울고 있을 때 위로 안 해줄 때 등), ‘놀이 참가 또는 모임 참가에서 배제되는 상황’(예를 들어, 놀이에 안 끼워 줄 때, 편을 짤 때 안 넣어줄 때 등)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친구들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구체적 상황으로는 ‘자신의 의견 또는 이야기를 무시하는 상황’(예를 들어, 내 말을 무시할 때, 물었을 때 대답 안 해줄 때 등)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7) 친구-소외 관련 스트레스 상황(7가지 상황): 1)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거나 적어서, 2)친구 사이에 인기가 없어서, 3) 내가 친구들과 다투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평소 친한 친구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4)친구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5)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친구가 있어서, 6)급할 때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는 친구가 적어서, 7)모르거나 이해 안 되는 문제에 대해 잘 가르쳐 주는 친구가 적어서 (실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 중 친구-소외 관련 스트레스 상황은 열 가지이다. 그러나 다른 스트레스 상황들과 유사하거나 개념적으로 거절민감성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되는 상황은 아동들의 면접에서 제외하였다

8) 교사관련 스트레스 상황(3가지 상황): 1)선생님이 몇몇 아이만 좋아해서, 2)선생님이 앞뒤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결과만 갖고 친구들 앞에서 야단쳐서, 3)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서.



## 교사 관련 스트레스 주제와 관련하여 아동들이 보고한 구체적 거절상황

교사 관련 스트레스 상황들과 관련하여 아동들이 응답한 구체적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이 몇몇 아이만 좋아한다고 느끼는 구체적 상황으로는, ‘처벌과 관련된 차별’(예를 들어, 좋아하는 아이는 안 때린다 등), ‘발표와 관련된 차별’(예를 들어, 좋아하는 아이를 먼저 발표시킨다), ‘질문 또는 대화와 관련된 차별’(예를 들어, 말을 시켜도 다른 애 말만 들어준다) 등이 보고되었다.

선생님이 앞뒤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결과만 갖고 친구들 앞에서 야단친다고 느끼는 구체적 상황으로는 ‘오해 관련 상황’(예를 들어,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나를 의심했다), ‘처벌관련 상황’(예를 들어, 먼저 시비건 친구가 있었는데 나를 때린다), ‘대화 또는 의견 무시 관련 상황’(예를 들어, 의견을 말해도 안 들어준다) 등이 보고되었다.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구체적 상황으로는 ‘처벌과 관련된 상황’(예를 들어, 시험 칠 때 어떤 애는 안 혼내고 나는 혼낸다), ‘발표와 관련된 상황’(예를 들어, 발표하라고 해놓고 다른 애만 시킨다), ‘무시하는 상황’(예를 들어, 내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 말만 들어준다) 등이 보고되었다.

교사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들이 보고하는 구체적 상황을 보면 스트레스 주제에 관계없이 교사에 의한 차별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아동들은 발표에서 차별받거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차별적으로 벌을 받을 때, 오해받았다고 느낄 때 교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 거절상황의 잠정적 구성

소집단 토론을 통해 우리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중에서 자신이 거부되거나 무시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아동들이 거절을 경험할 수 있는 잠정적 거절상황으로, 또래와 관련된 9가지 거절상황, 교사와 관련된 3가지 거절상황을 구성하였다.

친구관련 거절상황으로는 도움거절 상황, 약속 위반 또는 배신 상황, 무시당하는 상황, 놀이 또는 모임 배제 상황들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도움 거절상황으로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상황’, ‘수학문제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상황’, ‘싸움할 때 도움을 기다리는 상황’의 세 가지 거절 상황을 구성하였다.

놀이 또는 모임 배제 상황으로는 ‘편짜기 상황’과 ‘생일초대 상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무시당하는 상황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과 ‘자신이 말하는데 친구가 다른 아이 쪽으로 가버리는 상황’을 거절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약속 위반 또는 배신 상황으로는 ‘친구가 자기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다른 친구랑 노는 상황’ ‘약속을 깨뜨리고 친구가 먼저 가버리는 상황’을 거절상황으로 구성하였다.

교사와 관련된 거절 상황으로는 교사가 아동을 무시하거나 발표시 차별적으로 대하는 상황들이 보고되었기에, 아동의 거절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잠정적인 상황으로 ‘발표 관련 거절 상황’ ‘질문 관련 거절 상황’과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거절상황’의 세 가지 상황을 구성하였다.

끝으로, 기존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에 있는 능동적인 부탁 상황인 ‘비디오테이프 빌리기’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거절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비디오테이프 빌리기 상황이 우리 아동들

의 거절민감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디오테이프 빌리기’와 유사하게 능동적으로 부탁하는 맥락이지만 아동들에 의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컴퓨터사용 부탁 상황’을 추가적으로 거절상황으로 구성하였다.

## 본 조사

소집단 토론을 통한 예비조사에서 우리 아동들이 거절을 느낄 수 있는 13가지 잠정적인 거절상황을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우리 아동들의 소집단 토론에 근거한 13가지 잠정 거절상황과 기존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에서 사용되는 12가지 거절상황을 포함한 총 25가지의 거절상황에서, 우리 아동들이 보이는 거절예상 정도와 그와 관련된 거절불안과 거절분노 정도를 측정하여, 우리 아동들이 보이는 거절반응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거절상황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 방법

### 조사 대상자

울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143명, 6학년 154명의 총 297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을 빠뜨리거나 동일한 점수에만 계속 표시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13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8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284명 중 5학년이 137명, 6학년이 147명이었다(여학생: 128명, 남학생: 156명).

## 조사도구

### 아동에게 제시된 25가지 잠정 거절상황

아동이 거절을 예상할 수 있는 잠정 상황으로 25가지 상황을 사용하였다. 25가지 상황에는 기존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에 사용된 12가지 거절상황<sup>9)</sup>또래와 관련된 여섯 가지 상황, 교사와 관련된 여섯 가지 상황)과 예비조사에서 개발된 13가지 상황<sup>10)</sup>(또래와 관련된 아홉 가지 상황, 교사와 관련된 네 가지 상황)이 포함되었다. 기존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에 사용되었던 ‘고자질’상황은 우리 맥락에 맞게 약간 수정하였다.

### 거절예상 정도와 거절관련 정서의 측정

아동의 거절반응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거절상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거절상황에서 아동들이 거절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그리고 거절을 예상할 때 불안이나 분노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측정하여, 거절예상을 하면서 거절관련 정서가 높은 상황을 선정해야 한다.

거절예상 정도와 거절 관련 정서를 통합한 개념이 거절민감성이다. 거절민감성은 각 거절상황에서 아동들이 자신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거절예상 정도)와 거절당하기 전에 경험하는 예기정서(불안, 분노)를 곱하여 얻어진다. 먼저 거절예상

9) 또래관련 6가지 상황: 돈빌리기, 흉보기, 친구와의 싸움, 새친구 사귀기, 물건 줍기, 조짜기

교사관련 6가지 상황: 고자질, 학생선발, 학급파티, 싫어하는 아이, 비디오테이프 빌리기, 수학시험 돕기

10) 또래관련 9가지 상황: 준비물빌리기, 편짜기, 수학문제 묻기, 생일파티, 싸움 편들기, 친구의 배신, 함께 가기, 의견들어주기, 친구와의 대화

교사관련 3가지 상황: 질문하기, 발표기회, 선생님과의 대화

점수는 각 거절상황에서 아동들이 어느 정도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정도를 1점(전혀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6점(정말로 정말로 거절당할 것이다)사이의 6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 값으로 얻어진다. 여기서 1점에서 3점은 거절당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것이고, 4점부터 6점까지는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거절당할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절불안 정도와 거절 분노 정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화가 안 난다)에서 6점(아주 아주 많이 불안하다; 아주 아주 많이 화가 난다)의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거절로 인해 더 많이 불안하고, 화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Downey 등(1996, 1998)에 따르면, 개인의 거절민감성은 거절예상 점수와 예기정서 점수의 곱을 통해 계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거절민감성에는 거절불안 민감성(거절예기불안 × 거절예상 정도)과 거절분노 민감성(거절예기분노 × 거절예상 정도)의 두 유형이 있게 된다.

## 절차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네 학급, 6학년 네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아동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조사'라는 설명을 들은 후 약 50분 동안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 결 과

### 25가지 잠정 거절상황에서 전체 아동의 거절예상 반응과 거절관련 정서 반응

아동들의 거절경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거절상황들을 선정하기 위해 25가지 잠정 거절상황에서 전체 아동들이 예상하는 거절예상 정도와 거절당하기 전에 경험하는 예기불안과 예기분노를 점수가 높은 상황에서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잠정 거절상황 중 아동들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가 높은 상황들을 살펴보면, 교사에게 컴퓨터 사용을 부탁하는 '컴퓨터사용 상황'(M=3.80), 친구가 자신을 속이는 '친구배신 상황'(M=3.69), 교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날 사람을 선택하는 '학생선발 상황'(M=3.40), 친구가 약속을 어겼다고 의심 할 수 있는 '함께 가기 상황'(M=3.26), 반 친구가 자신을 홍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홍보기 상황'(M=3.22), 교사가 아동의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과 대화 상황'(M=2.94), 교사가 자신의 질문을 먼저 받아줄지 궁금해 하는 '질문하기 상황'(M=2.82),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지 궁금해 하는 '친구와 대화 상황'(M=2.76), 교사가 다른 아동의 거짓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있는 '고자질 상황'(M=2.72), 잘 모르는 수학 문제를 묻는 '수학문제 묻기 상황'(M=2.57), 그리고 교사가 어떤 아동이 싫다는 이야기를 듣는 '싫어하는 아이 상황'(M=2.55), 그리고 '생일 초대 상황'(M=2.51)이다.

그런데 거절 예상 점수의 경우에서 1점에서 3점은 거절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고, 3점 이상은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12 가지 상황에서 평균 3점 이상인 상황은 '컴퓨터사용 상황', '친구배신 상황', '학생선발 상황', '함께가기 상황', '홍보기 상황'의 다섯 가지 상황이고, 나머지 일곱 가지 상황은 평균점수가 2.5에서 3사이에 있다.

거절관련 예기정서 중 25가지 상황들 중에서 아

표 1. 25가지 잠정 거절상황에서의 아동의 거절예상과 거절예기 정서 점수의 순위별 평균

| 순<br>위 | 거절예상    | 평균<br>(표준편차)             | 거절예기불안 | 평균<br>(표준편차)             | 거절예기분노 | 평균<br>(표준편차)             |
|--------|---------|--------------------------|--------|--------------------------|--------|--------------------------|
|        | 해당상황    |                          | 해당상황   |                          | 해당상황   |                          |
| 1      | 컴퓨터사용   | 3.80 <sup>a</sup> (1.71) | 고자질    | 3.54 <sup>b</sup> (1.65) | 고자질    | 3.66 <sup>c</sup> (1.79) |
| 2      | 친구의 배신  | 3.69(1.68)               | 홍보기    | 3.35(1.63)               | 함께가기   | 3.29(1.73)               |
| 3      | 학생선발    | 3.40(1.46)               | 싫어하는아이 | 3.21(1.79)               | 홍보기    | 3.28(1.69)               |
| 4      | 함께가기    | 3.26(1.61)               | 함께가기   | 3.15(1.65)               | 선생님대화  | 3.19(1.81)               |
| 5      | 홍보기     | 3.22(1.48)               | 학생선발   | 3.11(1.70)               | 친구의 배신 | 2.69(1.79)               |
| 6      | 선생님대화   | 2.94(1.40)               | 싸움편들기  | 3.01(1.75)               | 질문하기   | 2.68(1.57)               |
| 7      | 질문하기    | 2.82(1.46)               | 친구 싸움  | 2.97(1.61)               | 싫어하는아이 | 2.61(1.74)               |
| 8      | 친구와 대화  | 2.76(1.54)               | 준비물빌리기 | 2.93(1.44)               | 친구대화   | 2.60(1.67)               |
| 9      | 고자질     | 2.72(1.61)               | 조짜기    | 2.91(1.63)               | 싸움편들기  | 2.52(1.61)               |
| 10     | 수학문제물기  | 2.57(1.46)               | 선생님대화  | 2.85(1.77)               | 돈빌리기   | 2.36(1.32)               |
| 11     | 싫어하는아이  | 2.55(1.26)               | 컴퓨터사용  | 2.83(1.73)               | 의견들어주기 | 2.09(1.48)               |
| 12     | 생일초대    | 2.51(1.39)               | 생일초대   | 2.70(1.60)               | 물건줍기   | 2.09(1.53)               |
| 13     | 물건줍기    | 2.46(1.35)               | 돈빌리기   | 2.61(1.30)               | 조짜기    | 2.07(1.42)               |
| 14     | 발표기회    | 2.46(1.31)               | 친구배신   | 2.54(1.53)               | 친구와의싸움 | 1.99(1.42)               |
| 15     | 조짜기     | 2.44(1.36)               | 친구 대화  | 2.52(1.60)               | 준비물빌리기 | 1.99(1.30)               |
| 16     | 친구와의 싸움 | 2.44(1.67)               | 수학시험둑기 | 2.51(1.67)               | 생일초대   | 1.96(1.45)               |
| 17     | 준비물빌리기  | 2.44(1.22)               | 새친구사귀기 | 2.49(1.53)               | 학생선발   | 1.91(1.41)               |
| 18     | 학급파티    | 2.44(1.31)               | 물건줍기   | 2.42(1.53)               | 편짜기    | 1.89(1.34)               |
| 19     | 편짜기     | 2.42(1.29)               | 편짜기    | 2.36(1.54)               | 발표기회   | 1.86(1.34)               |
| 20     | 싸움편들기   | 2.41(1.25)               | 수학문제물기 | 2.24(1.48)               | 수학시험둑기 | 1.85(1.35)               |
| 21     | 의견들어주기  | 2.39(1.35)               | 의견들어주기 | 2.23(1.53)               | 컴퓨터사용  | 1.85(1.41)               |
| 22     | 돈빌리기    | 2.39(1.15)               | 학급파티   | 2.20(1.43)               | 수학문제물기 | 1.76(1.21)               |
| 23     | 새친구사귀기  | 2.37(1.19)               | 질문하기   | 2.10(1.37)               | 학급파티   | 1.74(1.25)               |
| 24     | 비디오빌리기  | 2.12(1.28)               | 비디오빌리기 | 2.09(1.44)               | 비디오빌리기 | 1.56(1.08)               |
| 25     | 수학시험둑기  | 2.07(1.36)               | 발표기회   | 1.87(1.32)               | 새친구사귀기 | 1.52(1.02)               |

abc 점수범위는 각각 1점 - 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 거절예기불안, 거절예기분노를 더 많이 예상하는 것임.

동들이 거절당하기 전에 예기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상황은 ‘고자질 상황’(M=3.54), ‘홍보기 상황’(M=3.35), ‘싫어하는 아이 상황’(M=3.21), ‘함께가기 상황’(M=3.15), ‘학생선발 상황’(M=3.11), ‘싸움편들기 상황’(M=3.01), ‘친구와의 싸움 상황’(M=2.97), ‘준비물빌리기 상황’(M=2.93), ‘조짜기 상황’(M=2.91),

‘선생님대화 상황’(M=2.85), ‘컴퓨터사용 상황’(M=2.83), 그리고 ‘생일초대 상황’(M= 2.70)이었다.

일부 상황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거절 예기불안이 높게 나타난 상황들은 거절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게 나타난 상황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었다.

표 1에서 우리 아동들이 예기분노를 많이 경험

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고자질 상황’( $M=3.66$ ), ‘함께가기 상황’( $M=3.29$ ), ‘흥보기 상황’( $M=3.28$ ), ‘선생님대화 상황’( $M=3.19$ ), ‘친구배신 상황’( $M=2.69$ ), ‘질문하기 상황’( $M=2.68$ ), ‘싫어하는 아이 상황’( $M=2.61$ ), ‘친구대화 상황’( $M=2.60$ ), ‘싸움편들기 상황’( $M=2.52$ ), ‘돈빌리기 상황’( $M=2.36$ ), ‘의견들어주기 상황’( $M=2.09$ ), 그리고 ‘물건줍기 상황’( $M=2.09$ )이다. 거절 예기분노가 높은 상황들도 거절예상이 높은 상황들과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에서 개인차를 의미하는 거절민감성이 거절 예기불안과 거절 예기분노, 그리고 거절예상을 토대로 측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절예상이 높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예기정서(불안 또는 분노)가 높게 나타난 상황은 잠정적으로 거절민감성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을 고려하여, 표 1에서 거절상황을 선정한다면 먼저 거절 예상이 높으면서 거절 예기불안과 거절 예기분노가 모두 높은 다섯 상황으로 ‘흥보기 상황’, ‘고자질 상황’, ‘싫어하는 아이 상황’, ‘함께가기 상황’, ‘선생님과 대화 상황’이 적절한 거절상황 후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거절예상과 거절 예기불안 둘 다가 높은 세 상황으로는 ‘학생선발 상황’, ‘생일초대 상황’, ‘컴퓨터사용 상황’이 있고, 거절예상과 거절 예기분노 둘 다가 높은 세 상황으로는 ‘질문하기 상황’, ‘친구대화 상황’, ‘친구배신 상황’이 있다. 즉, 거절 예상 정도와 관련 거절 정서가 높은 상황은 총 11개로 또래관련 상황 5개(흥보기, 생일초대, 친구배신, 함께가기, 친구와 대화)와 교사관련 상황 6개(질문하기, 고자질, 학생선발, 싫어하는 아이, 선생님과 대화, 컴퓨터사용)가 거절상황의 후보가 될 수 있다.

## 거절민감성 상하집단의 25가지 거절상황에서 거절 예상 정도의 비교

거절상황이 아동들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적절한 상황이 되려면, 단순 평균이 높은 상황이 아니라 거절반응이 높은 아동과 거절반응이 낮은 아동을 구분해주는 상황이어야 한다. 따라서 거절상황이 아동들의 거절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상황임을 확인하는 한 방안은 거절민감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실제로 거절예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선정된 거절상황이 적절한 거절상황이 되려면 거절민감성이 높은 집단은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에 거절민감성이 낮은 집단은 자신이 거절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야 할 것이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상위 25%집단과 하위 25%집단 간에 보이는 거절예상 점수의 평균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의 결과를 검토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거절민감성이 높은 집단의 거절예상 평균은 적어도 3점 이상이어야 하고, 거절민감성이 낮은 집단의 거절예상 평균은 3점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표 2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은 모두 15개 상황이다.

이제 거절예상 정도와 거절관련 정서가 높은 상황을 기준으로 얻어진 상황들과 거절민감성 상하집단에서 거절예상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일차적으로 거절예상과 거절관련 정서가 높으면서(기준 1), 상하집단을 구분해주는 상황(기준 2)은 적절한 거절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기준에 의하면, 교사관련 상황으로는 ‘질문하기’, ‘고자질’, ‘학생선발’, 및 ‘선생

11) 설문지에서 아동들에게 거절예상 정도를 물을 때 사용된 척도는 6점 척도로 3점 이상은 거절될 것으로, 3점 이하는 거절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함을 의미한다.

표 2. 25가지 상황에서 거절민감성 상·하집단<sup>a)</sup>의 상황별 거절예상 점수의 평균비교

| 상황      | 거절불안<br>민감성 |      |          | 거절분노<br>민감성 |      |         |
|---------|-------------|------|----------|-------------|------|---------|
|         | 상집단         | 하집단  | t값       | 상집단         | 하집단  | t값      |
| 돈빌리기    | 2.85        | 1.96 | 4.49***  | 2.75        | 1.90 | 4.47*** |
| 질문하기    | 3.68        | 2.25 | 6.75***  | 3.83        | 1.17 | 7.83*** |
| 준비물빌리기  | 3.27        | 1.86 | 7.16***  | 3.20        | 1.86 | 6.85*** |
| 홍보기     | 4.16        | 2.54 | 7.07***  | 4.00        | 2.34 | 7.19*** |
| 편짜기     | 3.20        | 1.97 | 5.52***  | 2.99        | 1.86 | 5.41*** |
| 고자질     | 4.10        | 2.04 | 9.30***  | 4.06        | 1.89 | 9.81*** |
| 수학문제풀기  | 3.65        | 2.11 | 5.73***  | 3.56        | 2.06 | 5.98*** |
| 발표기회    | 3.04        | 2.01 | 4.53***  | 3.13        | 1.87 | 6.05*** |
| 친구와의싸움  | 3.13        | 1.97 | 5.05***  | 3.14        | 1.99 | 5.15*** |
| 새친구사귀기  | 2.76        | 1.92 | 4.30***  | 2.73        | 2.02 | 3.46**  |
| 학생선발    | 4.31        | 2.54 | 8.06***  | 4.09        | 2.68 | 5.90*** |
| 생일초대    | 3.39        | 1.86 | 8.12***  | 3.07        | 2.06 | 4.88*** |
| 학급과티    | 3.09        | 1.75 | 6.83***  | 2.93        | 1.86 | 5.29*** |
| 싸움편들기   | 3.18        | 1.83 | 6.57***  | 2.97        | 1.97 | 4.65*** |
| 물건줍기    | 3.18        | 1.83 | 5.23***  | 3.03        | 1.96 | 4.82*** |
| 조짜기     | 3.11        | 1.92 | 10.09*** | 3.38        | 1.89 | 7.48*** |
| 친구의 배신  | 3.79        | 3.51 | 0.95     | 3.96        | 3.32 | 2.26*   |
| 싫어하는 아이 | 2.28        | 2.31 | 2.09*    | 3.01        | 2.28 | 3.06**  |
| 함께가기    | 4.03        | 2.49 | 6.00***  | 4.10        | 2.42 | 6.83*** |
| 컴퓨터사용   | 4.58        | 3.04 | 5.96***  | 4.42        | 3.18 | 4.53*** |
| 의견 들어주기 | 3.49        | 1.65 | 9.02***  | 3.30        | 1.79 | 6.88*** |
| 비디오빌리기  | 2.48        | 1.78 | 3.29**   | 2.55        | 1.78 | 3.72*** |
| 친구와의 대화 | 3.89        | 2.07 | 8.41***  | 3.83        | 2.01 | 8.62*** |
| 수학시험듣기  | 2.63        | 1.44 | 5.69***  | 2.79        | 1.52 | 5.68*** |
| 선생님과 대화 | 3.85        | 2.25 | 5.68**   | 3.87        | 2.23 | 6.21*** |

\* $p < .05$  \*\* $p < .001$  \*\*\* $p < .0001$  양방검증

a) 상집단이란 해당 거절민감성점수에서 상위25%집단을 의미하며, 하집단이란 하위25%집단을 의미함

님과 대화'의 4개 상황이, 또래관련 상황으로는 '홍보기', '생일초대', '함께 가기', 및 '친구와 대화'의 4개 상황이 적절한 거절상황이 된다. 기존 척도에서 12가지 상황을 사용한 것에 비추어 볼 때, 8개 상황으로는 부족하여 4개의 거절상황을 선정해 보고자 한다. 12개의 거절상황을 선정하려면 상·하집단의 차이를 보여주는 나머지 7개 상황 중에서 상황 3개

를 제외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거절예상 정도나 거절과 관련된 정서(불안이나 분노)가 낮거나, 상·하집단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표 1과 표 2참조). 이에 따라 7개 상황 중에서 '발표기회', '친구와의 싸움', 및 '물건줍기'의 세 상황이 배제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조사를 통해 12개의 거절상황을

선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가지 거절상황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가지 거절상황을 보면, 또래관련 상황이 여덟 상황이고, 교사와 관련된 상황이 네 상황이다(부록 참조). 이는 기존의 Downey와 그 동료들(1998)이 사용한 거절상황이 또래관련 여섯 상황과 교사관련 여섯 상황으로 구성된 것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12가지 거절상황이 적절한 구성인지를 살피기 위해 거절예상 정도와 거절정서(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고려한 거절불안 민감성과 거절분노민감성으로 12가지 상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겐 값 1.0이상을 기준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Varimax 방법으로 회전시킨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12가지 거절상황에서 거절불안민감성(거절

예상 정도 \* 거절불안 정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보면(표 4 참조), 전체 변량의 52.84%를 설명하는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 두 요인의 각 변량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26.72%를 설명하는 여섯 개의 상황으로,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26.12%를 설명하는 여섯 개의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1을 구성하는 여섯 상황에는 교사관련 상황 1개(선생님이 학교 대표로 자기를 뽑아줄지를 기대하는 ‘학생선발’상황)와 또래관련 상황 5개(모르는 수학문제를 친구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수학문제문기’상황, 친구가 생일에 초대해줄지 궁금해하는 ‘생일초대’상황, 친구들이 자신을 조원으로 뽑아줄지 기다리는 ‘조짜기’상황,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릴까 염려하는 ‘홍보기’상황,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부

표 3. 기존 척도의 12가지 거절상황과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가지 거절상황의 비교

|           | 교사관련 상황    | 또래관련 상황    |
|-----------|------------|------------|
| 기존 척도     | 고자질 상황     | 돈빌리기 상황    |
| 거절 상황     | 학생선발 상황    | 홍보기상황      |
|           | 학급파티 상황    | 친구와의 싸움 상황 |
|           | 싫어하는 아이 상황 | 새친구사귀기 상황  |
|           | 비디오빌리기 상황  | 물건줍기 상황    |
|           | 수학시험답기 상황  | 조짜기 상황     |
| 본연구 거절 상황 | 질문하기 상황    | 준비물빌리기 상황  |
|           | 고자질 상황     | 홍보기 상황     |
|           | 학생선발 상황    | 수학문제문기 상황  |
|           | 선생님과 대화 상황 | 생일초대 상황    |
|           |            | 조짜기 상황     |
|           |            | 함께가기 상황    |
|           |            | 의견들어주기 상황  |
|           |            | 친구와의대화 상황  |

표 4.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가지 거절상황에서의 거절불안민감성의 요인분석

| 상황 종류     | 요인    |       |
|-----------|-------|-------|
|           | 1     | 2     |
| 학생선발*     | .762  | .165  |
| 수학문제문기    | .740  | .110  |
| 생일초대      | .686  | .262  |
| 조짜기       | .646  | .297  |
| 홍보기       | .603  | .320  |
| 준비물빌리기    | .546  | .520  |
| 선생님과의 대화* | .049  | .787  |
| 함께가기      | .287  | .700  |
| 질문하기*     | .203  | .649  |
| 고자질*      | .375  | .607  |
| 친구와의 대화   | .512  | .575  |
| 의견들어주기    | .481  | .501  |
| 아이겐값      | 3.21  | 3.13  |
| 설명변량      | 26.72 | 26.12 |
| 누적변량      | 26.72 | 52.84 |

\*가 있는 것은 교사관련 상황임

표 5.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가지 상황에서의 거절분노민감성의 요인분석

| 상황        | 요인    |       |
|-----------|-------|-------|
|           | 1     | 2     |
| 생일초대      | .712  | .218  |
| 준비물빌리기    | .685  | .066  |
| 수학문제물기    | .683  | .086  |
| 의견들어주기    | .673  | .325  |
| 조짜기       | .656  | .377  |
| 홍보기       | .620  | .184  |
| 학생선발*     | .584  | .367  |
| 친구와의 대화   | .545  | .527  |
| 선생님과의 대화* | .030  | .830  |
| 질문하기*     | .218  | .669  |
| 고자질*      | .306  | .625  |
| 함께가기      | .298  | .565  |
| 아이겐값      | 3.59  | 2.60  |
| 설명변량      | 29.89 | 21.66 |
| 누적변량      | 29.89 | 51.55 |

\*가 있는 것은 교사관련 상황임

탁하는 ‘준비물빌리기’상황)가 포함되는데, 요인 1의 상황은 주로 또래나 교사로부터의 인정과 인기와 관련된 상황들로 보여진다. 요인 2에는 교사관련 상황 3개와 또래관련 상황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2에 속하는 교사관련 세 상황에는 ‘선생님과 대화’상황(옆에 있는 아이가 괴롭힌다고 교사에게 말하는 상황), ‘질문하기’상황(교사가 자신의 질문에 먼저 대답해줄지 기다리는 상황), 그리고 ‘고자질’상황(거짓말한 친구의 말보다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기다리는 상황)이 포함되었고, 또래관련 세 상황에는 ‘함께가기’상황(함께 귀가하려는 친구를 기다리는 상황), ‘친구와의 대화’상황(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지 궁금해하는 상황), 그리고 ‘의견 들어주기’상황(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줄지 궁금해하는 상황)이 포함되었다. 요인 2의 상

황들은 또래나 교사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받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요인 1과 요인 2를 종합하면, 아동들은 또래나 교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기가 없을까봐 불안해하는 거절상황과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을까 불안해하는 거절상황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12가지 거절상황에서 거절분노민감성(거절예상 정도 \* 거절분노 정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전체 변량의 51.55%를 설명하는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났다(표 5 참조). 그런데 요인 1에 포함된 상황을 보면, 앞의 12가지 거절상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요인 1에 상황 1개(‘의견 들어주기’상황)가 더 추가되어 전체 변량의 29.89%를 설명하는 일곱 개의 상황이 나타났다. 요인 2에 속하는 다섯 개의 상황은 앞의 요인분석에서 1개의 상황(‘의견들어주기’상황)이 줄어들었을 뿐 나머지 다섯 상황은 앞의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상황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 다섯 상황은 전체 변량의 21.66%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개의 거절상황이 또래관련 상황 8개와 교사관련 상황 4개로 다소 불균형적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한 정도와 그와 관련된 불안과 분노 정도를 고려한 요인분석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보고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12가지 상황이 우리 아동들의 거절상황으로 큰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논 의

우리 아동들의 거절반응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거절상황을 구성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거절민감성 척도에



사용된 12가지 거절상황을 사용한 예비조사에서 우리 아동의 30% 이상이 거절을 예상한 상황은 4개 뿐이었다. 따라서 우리 아동들의 거절상황을 찾아내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소집단 토론 방식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소집단 토론에서는 우리 아동들의 스트레스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민하영, 유안진, 1998)에서 얻어진 상황들 중에서 거절상황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아동들에게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아동들이 거절 또는 소외당했다고 느끼는지 그 경우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이러한 토론을 토대로 13가지 추가적 거절상황을 구성하였다.

소집단 토론을 통해 구성된 13가지 거절상황과 기존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에서 사용된 12가지 상황들을 포함하는 25가지 상황을 잠정적 거절상황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284명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25가지 잠정 거절민감성 상황에서 아동들의 거절예상 정도와 거절과 관련된 정서를 측정하여, 두 가지 분석을 토대로 거절 상황 12가지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우리 아동들에게 제시된 25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 거절을 더 많이 예상하고, 거절과 관련하여 불안이나 분노를 더 많이 느끼는지 살핀 결과, 거절예상이 높으면서 거절불안이나 거절분노가 높은 11개 거절상황을 얻을 수 있었다. 적절한 거절상황이란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절을 예상하여 불안이나 분노를 느끼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을 거의 예상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 분석은 거절민감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거절예상에서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여, 15개의 거절상황을 얻을 수 있었다. 남은 문제는 이 두 가지 분석을 어떻게 통합하여 적절한 거절상황을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적절한 거절상황이라면 두 가지 분석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거절상황 중 교사관련 상황으로는 ‘질문하기’, ‘고자질’, ‘학생선발’, 및 ‘선생님과 대화’ 상황이 포함되었고, 또래관련 상황으로는 ‘홍보기’, ‘생일초대’, ‘함께 가기’ 및 ‘친구와 대화’ 상황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척도가 12가지 상황이라 나머지 상황 중에서 이 두 기준을 덜 만족시키는 세 상황을 배제하고, 4가지 상황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였다 (표 3참조).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가지 상황들과 기존의 아동용 거절민감성 척도(Downey et al., 1998)에서 사용되는 상황들을 비교해 보면, 홍보기 상황, 조짜기 상황, 고자질 상황, 그리고 학생선발 상황만이 중복되고 나머지 상황은 서로 다르다(표 3 참조). 또한 Downey 등(1998)이 사용한 거절상황은 교사관련 상황 6개와 또래관련 상황 6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 선정된 거절상황은 또래관련 거절상황 8개와 교사관련 거절상황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개 거절상황이 불균형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가지 거절상황이 어떤 요인들로 구분되는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절예상 정도와 거절불안을 근거로 한 거절불안민감성을 토대로 12개 거절상황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는데, 1요인에 속하는 거절상황이 6개이고(설명 변량: 26.72%), 2요인에 속하는 거절상황이 6개(설명 변량: 26.12%)이었다. 요인 1에는 교사관련 상황 1개와 또래관련 상황 5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또래나 교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기가 없을까봐 불안해하는 상황들이었다. 요인 2에는 교사관련 상황 3개와 또래관련 상황 3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또래나 교사

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을까 불안해하는 거절 상황들이었다.

거절예상 정도와 거절분노를 근거로 한 거절분노민감성을 토대로 12개의 거절상황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도 두 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는데, 앞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요인분석에서도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 1 요인에 속하는 거절상황이 7개이고(설명 변량: 29.89%), 2 요인에 속하는 거절상황이 5개(설명 변량: 21.66%)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요인 1에 또래관련 상황인 ‘의견 들어주기’가 추가적으로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앞의 요인분석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12가지 거절상황이 양적으로 볼 때 또래에 치중되어 있지만, 거절과 관련된 개인차를 측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래관련 거절상황이 아주 다양한 것에 비해 교사관련 거절상황이 한정되어 있다는 결과는 교사관련 상황들에서 전체 아동들이 거절을 예상하는 정도가 낮은 결과와 일치한다(표 1참조). 아마도 우리 아동들은 또래 관계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거절을 경험하는 반면에, 교사와 관련해서는 제한된 상황에서 거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이러한 추론은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척도(민하영, 유안진, 1998) 개발 과정에서 우리 아동들은 친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보고하는 반면, 교사와 관련해서는 몇몇 스트레스 상황만 보고한 것에서도 지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아동의 거절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을 구성하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들의 거절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피는 것일 것이다.

Downey와 Feldman의 정의에 따르면, 거절민감

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 거절당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예기불안을 느끼고, 쉽게 거절당했다고 지각하고, 거절되었을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다(Downey & Feldman, 1996; Downey, et al., 1997; Feldman & Downey, 1994).

정서형성에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처럼 문화나 사회에 따라 거절을 예상하는 상황도 다르지만, 거절을 예상할 때 개인이 느끼는 정서도 다를 수 있다(Frijda & Mesquita, 1994; Kitayama & Markus, 1994; Kitayama, Markus, Matsumoto, & Natasakkunikt, 1997; Matsumoto et al., 1988; Triandis, 1994). 기존의 거절상황에서 아동들이 거절을 예상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자유롭게 적도록 한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Downey 등(1998)의 연구와는 달리 불안과 분노반응 이외에 우울반응이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들이 보인 몇 가지 반응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 아동들은 거절당할 것에 대해 속상함을 나타내는 반응(이하 낙담반응이라고 칭함)이 많이 보고된다는 점이다. 둘째, ‘짜증난다’는 정서반응이 거절당하기 전과 거절당한 이후에 모두 나타남으로써 ‘짜증난다’라는 정서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독특한 정서 반응으로 보인다(넓은 의미에서는 분노 반응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거절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나치게 무감각한 정서반응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들은 과거에 많은 거절을 경험하여 거절에 익숙해져 거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포기반응’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아동들의 거절민감성을 측정할 경우에 거절로 인한 불안과 분노 이외에 낙담(우울)과 관련된 정서를 추가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아동들은 거절당할 가능성을 예상할 때 불안과 분노를 경험하

는 미국의 아동들과는 달리 그 결과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릴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로는 선정된 거절상황들이 타당한지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된 거절상황을 사용하여 측정된 아동의 거절민감성이 기존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거절민감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측정된 거절민감성이 아동들이 부모, 친구, 그리고 교사로부터 받았다고 지각하는 거절경험이나 무시경험과 어느 정도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선정된 상황들의 타당성이 심도있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민하영, 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 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복동(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궁호(1997). 문화 유형과 정서의 차이(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 6(2), 1-43.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868-877.
- Averill, J. R. (1985) *The social construction of emo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love*. In K. J. Gergen & K. E. Davis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pp.89-109). New York : Springer-Verlag.
- Baumeister, R., & Leary, M.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Downey, G., & Feldman, S. (1996). The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 45-61.
- Downey, G., Khouri, H., & Feldman, S. (1997). Early interpersonal trauma and later adjustment: The mediational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D. Cicchetti & S. L. Toth.(Eds.),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rauma: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8.(pp. 85-114).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owney, G., Lebolt, A., Rinchon, C., & Freitas, A.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 1072-1089.
- Ellsworth, P. C. (1994). *Sense, culture, and sensibility*.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31-247.
- Frijda, N. H. & Mesquita, B. (1994). *The social rules and functions of emotions*.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tayama, S. & Markus, H. R. (1994). *Emotion and culture :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 of self-esteem management: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 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England :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 Lazarus, B. N. (1994). *Passion and Reason :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Levy, R. I. (1984) *The Emo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K. R.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pp. 397-412). Hillsdale, NJ : Erlbaum.
- Matsumoto, D., Kudoh, T., Scherer, K., & Wallbott, H. (1988). Antecedents of and reactions to emo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267-286.
- McClelland, D. C. (1987). *Human Motiv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schel, W. (1999). *Introduction to Personality* (6th ed). Harcourt Brace Jovanovich.
- Mischel, W., Cantor, N., & Feldman, S. (1996).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The nature of willpower and self-control.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329-360). New York: Guilford Press.
-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 338-249.
- Rogers, C.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 3, pp. 184-226). New York: McGraw-Hill.
- Russell, J. A. (1991), Culture and categorizations of emo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0, 426-450.
- Shoda, Y., & Mischel, W. (1998). Personality as a stable cognitive-affective activation network: Characteristic patterns of behavior variation emerge from a stable personality structure. In S. J. Read & L. C. Miller (Eds.), *Connectionist models of social reasoning and social behavior* (pp.175-208). Hillsdale, NJ: Erlbaum.
- Shweder, R. A. (1993). *The cultural psychology of the emotions*. In M. Lewis & J. M.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 Guilford.

Triandis, H. C. (1994). *Major cultural syndromes and emotion*.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1차 원고 접수: 2008. 4. 15

수정 원고 접수: 2008. 5. 13

최종게재결정: 2008. 5. 14

# Constructions of Rejective Situations for Korean Children

Ji-yoon Park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Rejection sensitivity is a disposition that a person readily perceive and overact to social rejection with anxiety and anger. Preliminary surveys and a main study was done to select rejective situations for measuring Korea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Data were gathered from 5th to 6th 355 graders attending at an elementary school in Ulsan city. In preliminary survey using twelve rejective situations in Downey's(1998)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CRSQ), it was found that most of Korean children would not expect rejection in several situations of CRSQ. Additional thirteen rejective situations for Korean children were constructed based on small group discussions about children's stressful life events. In main study, among 25 situations made up from CRSQ and preliminary survey, twelve rejective situations were selected that discriminated high rejection-sensitivity group from low rejection-sensitivity group based on rejection-relevant emotion and anticipated rejection. Two factors were found on selected 12 situations by factor analysis.

*key words: rejection sensitivity, rejective situation, rejection-relevant emotion, anticipated rejection*

## 부록: 본 연구를 통해 선정된 12가지 거절상황

## 교사관련 4가지 상황

## 질문하기

지금은 과학시간으로 조별로 모여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너는 실험을 하는 도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손을 들고는 선생님에게 “질문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때 다른 아이가 선생님을 불렀다. 선생님은 너를 쳐다보다가 다른 아이가 부른 쪽을 돌아보았다. 너는 선생님이 대답해주길 기다리면서 궁금해 한다. “선생님이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주실까? 아닐까?”

## 교자질

같은 반에 있는 한 아이가 담임선생님에게 ‘네가 괴롭힌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너는 “그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어요”라고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너를 쳐다보시면서, 곧 무슨 말을 하실 것 같다. 너는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궁금해한다. “선생님이 내 말을 믿을까? 그 아이 말을 믿을까?”

## 학생선발

유명한 사람이 너희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생각해 보자.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과 만날 학생들을 뽑을 것이다. 너는 선생님이 누구 뽑을지 기다리면서 궁금해 한다. “선생님이 나를 뽑아 주실까? 아닐까?”

## 선생님과 대화

옆에 짝이 자꾸 너를 괴롭힌다고 생각해보자. 너는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기로 결심했다.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계신다. 너는 “선생님! 옆에 아이가 괴롭혀요”라고 크게 말했다. 선생님은 여전히 서류를 보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다. 너는 궁금해 한다.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아닐까?”

## 또래관련 8가지 상황

## 준비물 빌리기

이제 곧 수업시간이 다 되어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갑자기 준비물을 빠뜨린 것이 생각났다. 준비물이 없으면 수업을 못한다. 친구의 준비물을 나눠 쓰면 친구가 준비물을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급해서 반 친구에게 준비물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친구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너는 궁금해진다. “이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줄까? 아닐까?”

## 홍보기

체육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반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고 네가 교실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다. 운동장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반 아이 몇 명이 계단 밑에서 “○○가...”라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궁금해 한다. “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일까? 아닐까?”

## 수학문제물기

지금은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자. 선생님이 문제를 몇 문제 내어 주시고 풀어 보라고 하셨다. 문제 중에는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다. 너는 반 아이에게 내가 모르는 문제의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이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너는 궁금해 한다. “이 아이가 내게 가르쳐 줄까? 아닐까?”

## 생일초대

우리 반에 있는 어떤 아이의 생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 아이는 지금 반 아이들에게 생일 초대장을 나눠주고 있다. 너는 초대장을 받고 싶어 하면서 궁금해 한다. “그 아이가 내게도 초대장을 줄까? 아닐까?”

## 조짜기

선생님이 갑자기 특별 수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자. 선생님은 “특별 수업을 위해 여섯 조로 나눠야 되는데, 특별히 같은 조가 되고 싶은 사람끼리 모이세요”라고 하셨다. 벌써 몇몇의 아이들이 선택되어 조원으로 뽑혔다. 너는 아이들이 너를 빨리 선택해주길 기다리면서 궁금해 한다. “아이들이 나를 조원으로 빨리 뽑아 줄까? 아닐까?”

## 함께가기

오늘 오후에 친구랑 같이 집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을 다녀오니 친구가 보이지 않는다. 친구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너는 궁금해 한다. “친구가 먼저 가버린 걸까? 아닐까?”

## 의견들어주기

다음 주에 학예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해보자. 선생님은 몇몇의 아이들을 조별로 나누고는 각기 원하는 주제를 결정하라고 하셨다. 너희 조 아이들끼리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 너도 어떤 의견이 생각났다. 너는 네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궁금해 한다. “우리 조 아이들이 내 의견을 들어줄까? 아닐까?”

## 친구와의대화

내가 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반 아이 한 명이 친구를 오라고 부른다. 친구는 그 아이 쪽을 쳐다보고 있다. 너는 그 친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해 한다. “친구가 내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까? 저 아이에게 갈까?”